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7(土) 맑은 뒤 흐림 12/24℃ 8(日) 흐리고 비 14/19℃

단기 4342년 (음력 9월 2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17호 1판 2009년 11월 7일 토요일

"전남 한옥마을이 뜬다"

'슬로시티'로 지정된 장흥군 유치면 신덕마을에서 6일 박준영 도지사와 이명흠 장흥군수, 신덕마을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 민박단지 개소식'이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행복마을 51곳 귀농·귀촌 줄이어

민박·농촌체험 관광소득도 '대박'

나뭇잎이 누렇게 물들어가는 나지막한 산길을 돌고 돌아 들어선 함평군 해보면 오두마을. '오지'로 불릴 정도로 작은 마을 여기저기에서는 단아한 모습의 한옥이 관광객을 맞는다.

36가구 중 절반 가까이인 13 가구가 한옥이고, 3 가구는 한옥 신축이 한창이다. 마을 길을 따라 접어들면 수 백종의 야생화가 반긴다. 한옥에 들어선 순간 집안 곳곳의 황토에서 뿜어내는 신선한 기운이 느껴진다. 여름 휴가철이 지난 지 오래됐지만, 오두마을 한옥 민박집은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연일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다.

전남 한옥이 뜨고 있다. 낙후된 농어촌 마을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대박'을 일궈내고 있는 것이다.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도 늘고 있지만, 마을 주변 토지 가격 상승과 민박을 통한 소득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도 증가해 침체한 마을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전남도 내 한옥 행복마을은 총 51개소. 이중 기존 마을 정비형이 39곳이고, 신규 단지 조성형이 12곳이다. 현재 146개의 한옥이 건립됐고, 464개의 한옥이 신축 추진중이다. 내년에는 500동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행복마을을 통해 147명의 외지인이 귀농·귀촌을 통해 행복마을에 새롭게 터를 다졌고, 행복마을 주변 토지가격이 평균 200%까지 상승했다. 매월 70여 명 정도가 행복마을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있다. 행복마을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몫을 하고 있지만, 한옥 민박을 통한 농촌 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인 지난 7월2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2개의 행복마을 76동의 한옥에서 560건의 민박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5천300여 만원. 구례 오미·장흥 우산·해남 매정·무안 학례마을은 농특산물 공동판매를 통해 1천2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 민박을 경험한 관광객들의 호응도 좋다. 이들은 민박을 이용한 후 행복마을 홈페이지(www.happyvil.net) 후기 소감 글에 "구들장 방이어서 따뜻하고, 가마솥에 밥도 해먹고 조용히 밤하늘도 구경해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좋은 한옥민박이 전남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등 찬사의 글을 남기고 있다.

최근에는 함평 오두마을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60여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간 2009년 하반기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소재 농촌개발원에서 귀농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인 이들은 앞으로 농촌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로, 버섯 재배 및 수확·딸기와 토마토 농장에서의 재배기법 습득·고구마 캐기·화분에 화초 심기·한옥 민박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하고 돌아갔다.

이승옥 전남도 행복마을 과장은 "내년에도 도시민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한옥민박과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소득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돔구장, 공청회 통해 정밀검증

조건 안맞으면 백지화 할 수도"

박광태시장 5개구청 방문 마무리

박광태 시장

박광태 광주시장은 13일 "(주)포스코건설로부터 돔구장과 관련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지역 내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이 주최가 된 대대적인 공청회를 수 차례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사업제안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되고, 조건이 예상한 것과 다를 경우 백지화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여 '돔구장'과 관련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13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광산구청을 방문한 박 시장은 최근 돔구장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 "기업이 투자의향만 밝힌 상태에서 토론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만간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공개해 투명하게 논의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1천억 원의 빚을 내 개방형 야구장을 만들었을 때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갈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민자유치에 의한 돔구장이 매력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갑길 광산구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박 시장은 "광산구가 광주의 경제중심이며, 하남산단, 평동산단은 물론 진곡산단과 빛그린산단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핵심 자치구가 될 것"이라며 전 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찾으려면 3일 전부터 고민하는데, 말을 꺼내기도 무섭게 공직자들은 법규를 이유로 단 한 마디로 거절한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정에서는 모든 일이 주민들을 위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광산구청이 업무보고와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한 풍영체육시설단지 진입도로 개설, 연산동 선형 개량 공사, 하남산단 안청공원 운동장 등 리모델링 등 모두 36억 여원의 지원 요구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검토해 지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광산구청 방문을 끝으로 지난달 27일 동구청을 시작으로 한 2009년 자치구 순방을 모두 마쳤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겨울 신종플루 피해 심각

세계보건기구 경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 지구촌 북반구에서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온이 낮아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반구 월동기에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수준의 감염 및 사망 사례가 계속 보고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변종이 나타났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현재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멕시코의 경우 신종플루 확산 초기인 지난 4월에 비해 더 많은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미국은 예년에 비해 독감 환자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신종플루 감염 및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아우도 해냈다" U-17 월드컵 8강

승부차기 멕시코 꺾어

나이지리아와 4강 다툼

U-17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6일 새벽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U-17축구월드컵 16강전 한국-멕시코전에서 승리하고 나서 경기장을 돌며 환호하고 있다. 〈SBS TV 촬영〉

한국 청소년축구대표팀이 2009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멕시코에 승부차기 끝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대표팀은 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나이지리아 바우치의 아부바카르 타파와 발레와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 대회 16강전에서 후반 47분 터진 김동진(안동고)의 천금 같은 동점골로 연장까지 이어진 120분간 혈투를 1-1로 비기고 나서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이겼다.

2승1패로 F조 2위를 차지해 1987년 캐나다 대회 8강 이후 22년 만에 조별리그를 통과했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8강 대열에 합류하면서 세계 4강도 넘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달 이집트에서 막을 내린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홍명보호'가 8강 신화를 쓴 데 이어 17세 이하 아우들까지 8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에 기대를 갖게 했다.

한국은 이어 열린 경기에서 뉴질랜드를 5-0으로 제압한 개최국 나이지리아와 오는 10일 오전 3시 칼라바르에서 4강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조선대 정이사 26일 발표 ▶3면 백화점 미끼상품의 세계 ▶4면 수능 건강 음식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U-17 축구 8강 '골인' ▶14면